

주간 경제 산업 동향(7월 4주)

주페루
대사관

주요 경제지표(7.26 기준)								
환율(Sol/US\$)		기준금리 (중앙은행)	GDP(PBI) (%)		소비자 물가(2011.12=100)		건설자재 물가(2013.12=100)	
BUY	SELL		5월	1-5월	6월	1-6월	6월	1-6월
3.265	3.272	2.75%	6.43%	4.83%	0.35%	1.24%	0.12%	2.58%

* 일부 내용은 코트라(리마무역관)에서 제공

□ IMF, 금년도 페루 경제 3.7% 전망 견해 유지

○ IMF 중남미지역 대표 Alejandro Werner는 금년도 페루 경제성장 전망치 3.7%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힘. 콜롬비아 전망도 2.7%로 유지함. 멕시코에 대하여는 기존의 2.3% 전망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미국과의 NAFTA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어 하향 조정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함.



○ Werner는 중남미 지역의 경우 국가별로 차이가 관찰되는데 일부 국가는 미국 경제성장의 덕을 보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여건이 한층 강화되면서 펀드멘탈이 취약한 국가 및 정치적 불안이 높은 국가의 경우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함. 그는 투자와 불확실성의 증대와 통상 갈등과 긴장이 높아질 경우 현재의 전망은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임

(Andina 7.23일자)

□ 사법부 부정부패, 경제에도 타격(GDP의 0.5% 손실)

○ 산업협회(SNI)는 최근 불거진 사법부의 부정부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페루 전체 GDP(약 2천억불)의 약 0.5%에 이를 것이라고 밝힘.

○ 협회는 사법제도 개혁과 기업의 투명경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국제 규범)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참고로 국가경쟁력 평가의 임금, 불규칙, 뇌물 부문에서 페루는 180개 국가 중 96위를 기록함.

(La Republica 7.23일자)

□ 소비자동향지수는 비관적, 기업경기실수 지수는 낙관적으로 지표 간 괴리

- 페루 경제가 2분기 들어 5%대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회복세의 신호를 보이고 있으나 리마 소비자의 심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poyo 컨설팅이 실시한 7월 소비자 동향지수 조사에서도 50점 이하(47점)을 기록, 1월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사회계층(A~E)별 전망은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는데 A/B층은 50점을 넘어 다소 낙관적인 심리를 나타냈으나, C/D/E 층은 21개월 연속 비관적인 구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소비자동향지수가 부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5개월 연속 낙관적인 전망세를 유지하고 있어 양 지표 간에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El Comercio 7.26일자)

□ 공공투자 감소세, 경제성장에 브레이크(IMF)

- IMF는 페루가 중남미 국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성장세를 시현하고는 있으나, 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위험요인이 있다고 지적함.
- IMF가 지적하는 주요 위험 요인은 금년도 공공투자 목표 하향 조정, PPP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지연에 따른 민간투자 감소, 부정부패 수사, 하반기 기초 및 광역 지자체장 선거 실시에 따른 사업 추진 및 재정집행 지연 등임.
- 공공투자의 경우, 연초 7,078백만솔(22억불)을 집행한다고 발표하였으나, 4,300백만솔(약 14억불)로 1차 하향 조정되었으며, 현재는 2,500백만솔(약 8억불)로 낮아져 당초 지출 확대 목표(17.5%)의 1/3수준(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중앙은행(BCR) 총재도 7월초 공공투자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한바 있음.
- 그러나 내수소비가 살아나고 공공부채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위험요인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민간투자 유치, 국제 광물가격의 상승이 페루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는 주요 동인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Gestion 7.26일자)

□ IDB, 페루 정부에 투자의 질(質) 개선 위한 세제 시스템 개선주문

- 미주개발은행(IDB) Andrew Powell 수석자문관은 금년도 세계경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3.9%의 성장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중남미는 당초 전망보다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어 금년도에는 1.6%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함.
- Powell 수석자문관은 중남미가 세계경제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투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는바, 생산성에 있어서는 중남미 전체 기업의 80%는 5인 미만의 종업원(비정규직)을 가진 마이크로 기업이며 페루도 비슷한 상황으로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워 생산성이 매우 낮은 상태라고 함. 투자에 있어서는 양(量)적인 문제는 물론 질(質)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도 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히, 공공투자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공공지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투자의 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투자의 양(量) 문제 관련, 중남미의 경우 GDP 대비 평균 투자규모는 19% 수준으로 낮은 저축률이 투자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함. 페루의 경우는 GDP 대비 22%로 투자의 양적인 문제는 크지 않으나 투자의 질(質)은 낮은 수준으로 페루정부는 이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 투자의 질(質)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권의 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선진 세제(稅制)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기업에서 준수와 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슬림화 하는 것이라고 함.
- 한편, 부정부패의 성장저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페루는 다른 나라보다 투명한 프로젝트 선정절차와 양호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은행도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어 외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함.

(Gestion 7.24일자)

□ 태평양동맹(PA) 정상회의 개최, 2030 비전수립, 한국의 가입추진 환영

- 태평양동맹(PA) 4개 회원국(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은 7.24일 멕시코에서 8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기 위한 경제공동체 발전 및 중남미 지역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고 밝힘.

-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Peña Nieto 멕시코 대통령은 향후 12년간의 발전 로드맵을 설정하게 될 “비전 2030 수립”을 발표함. 동 비전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의 확장, 디지털 연결, 금융서비스, 사이버안전 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함.
- 차기 의장국을 수임하게 된 페루 Martin Vizcarra 대통령은 2030 전략비전은 자본, 서비스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게 될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칠레 Sebastina Piñera 대통령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우선 조치로 4개국 간 관세 자유화를 위한 장벽제거와 관세자유지역 창설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함
- 아울러, PA는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호주 4개국과 준회원국 가입협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및 에콰도르의 준회원국 가입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힘.

(Gestion 7.26일자)

□ 증권거래소(BVL) 상장기업, 상반기 31% 성장 전망

- Credicorp Capital 수석애널리스트인 Luis Vicente는 리마증권거래소(BVL) 상장기업의 금년도 수익이 31% 이상(달러 수익률 32.1%, 페루 Soles 수익률 3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함.
- 상장기업의 2분기 수익 관련, Vicente 수석은 광산 업종 기업이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한바, 광물의 가격의 상승 요인 외에도 전년 대비 80% 이상 늘어난 금속 제련기업의 생산 증가가 주요 동인이 될 것이라고 함.
- 소비재 업종 기업도 지수가 50포인트 이상 상승하며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나, 양식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제약기업, 금융 및 시멘트 생산기업도 높은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함. 전력기업의 경우 배전기업과 발전기업간 수익전망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됨.

(Andina 7.22일자)

□ 18-35세 구매층의 30%는 소셜네트워크 통해 추천 상품 구매

- UCAL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리마에 거주하는 18-35세 청년층의 30%는 소셜 네트워크 등 영향력이 큰 매체가 추천한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됨.
- 연구를 주관한 Wong 교수에 따르면, 이들 연령층은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와 함께 성장한 세대로 패션,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제품 구매 시 페이스북(12%), 인스타그램(51.9%), 유튜브(35%)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매층의 45%는 평균 15불~30불을 구매하며, 20%는 30불 이상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적어 구매금액이 상승하고 있지는 않다고 함. 이들 매체에 대한 접속 회수는 약 절반이 매일 접속한다고 응답함.

(Gestion 7.25일자)

【별첨】 페루 주요경제 동향

1. 한국의 對페루 품목별 수출 실적 (단위: US\$천)

구 분		2016		2017		2018.5월	
순위	품목명	금액	수출 증감률	금액	수출 증감률	금액	수출 증감률
1	승용차	418,905	5.1	289,597	-30.9	90,757	-21.6
2	화물자동차	70,155	-5.4	71,557	2.0	27,020	-1.6
3	경유	58,395	0.0	69,512	19.0	0	0
4	합성수지	64,039	-43.8	60,782	-5.1	45,644	84.7
5	제트유및등유	48,934	42.8	43,196	-11.7	52,706	0
6	자동차부품	40,542	12.2	41,356	2.0	15,107	0.3
7	기타석유화학제품	24,773	-16.1	29,867	20.6	21,610	78.4
8	기타정밀화학원료	28,831	-28.9	29,458	2.2	15,979	53.0
9	의약품	22,573	0.0	23,720	5.1	14,158	-22.2
10	건설중장비	19,498	-9.0	18,118	-7.1	14,521	127.9
11	무선전화기	24,778	-60.7	15,323	-38.2	1,878	-74.2
12	시멘트	6,187	-72.9	11,139	80.0	4,799	44.6
13	세탁기	10,568	-10.4	10,548	-0.2	3,532	-25.7
14	축전지	6,176	54.2	9,847	54.6	3,404	17.4
15	타이어	12,891	-10.2	9,482	-26.4	3,012	-25.8
	총계	1,154,989	-5.1	913,801	-20.9	390,133	20.0

2. 한국의 對페루 품목별 수입 실적 (단위: US\$천)

구 분		2016		2017		2018.5월	
순위	품목명	금액	수입 증감률	금액	수입 증감률	금액	수입 증감률
1	동광	236,793	-2.1	603,016	154.7	229,158	13.6
2	아연광	252,635	13.5	533,878	111.3	236,021	5.7
3	기타금속광물	413,429	84.6	418,451	1.2	225,348	93.2
4	천연가스	39,473	0	143,491	263.5	331,561	170.0
5	나프타	71,617	-25.4	79,117	10.5	21,143	-53.0
6	기타수산가공품	64,042	-10.5	77,014	20.3	48,303	16.8
7	과실류	45,889	-2.3	72,996	59.1	65,662	103.0
8	은	33,489	-51.7	50,513	50.8	11,909	-28.0
9	커피류	25,858	-28.5	34,464	33.3	7,190	-21.4
10	동과및스크랩	23,388	-12.0	22,734	-2.8	13,489	66.0
	총계	1,294,386	14.0	2,132,958	64.8	1,242	43.6

주) 환율은 연/월말 증가 기준 / 자료원 : 페루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및 이코노미스트

3. 페루 주요경제 요약 총괄표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GDP 성장률	%	3.3	3.9	2.7
물가상승률	%	3.5	3.6	2.9
이자율	%	2.4	2.6	3
실업률	%	6.2	6.0	6.7
최저임금	Sol	750	850	850
외채총액	백만불	73,274	74,651	75,900
외환보유고	백만불	61,485	61,686	63,414
통화량	백만솔	40,643	43,295	47084
수출	백만불	34,236	36,838	-
수입	백만불	37,385	35,107	-
무역수지	백만불	-3,150	1,730	1888
경상수지	백만불	-9,402	-5,461	-
환율	Sol/US\$	3.203	3.379	3.25
FDI	백만불	9,039	4,675	1430
국가위험도	1-12월 평균	201	200	200

4. GDP 성장률

연도	단위	2015	2016	2017
명목 GDP	백만솔	612,791	658,713	650,604
실질 GDP	백만솔	482,809	501,622	429,711
GDP성장률	%	3.3	3.9	2.7
1인당 GDP	US\$	6,027	5,950	6,506

* 예상치 / 자료원 : 페루 중앙은행 및 국제통화기금

5. 물가상승률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상승률(%)	2.86	3.22	4.40	3.23	2.9

6. 이자율

연도	2014	2015	2016	2017
기준금리(%)	2.3	3.5	4.25	3.00

* 자료원 : 페루 중앙은행